

# 唐詩 속의 西王母 이미지의 기원과 활용\*

박 혜 경\*\*

## Ⅰ 국문초록 Ⅰ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문헌 속 西王母 이미지의 기원과 그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唐詩 속에서 어떠한 서정과 관념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로 활용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 장에서는 唐代 이전까지의 문헌 속에 등장하는 西王母의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그 발전 과정상의 특징을 ‘초기 혼돈 형태’- ‘不死’- ‘제왕과의 접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I 장에서는 『全唐詩』에 수록된 詩歌 중 西王母의 이미지를 ‘美’- ‘長生’- ‘諷刺’로 나누어 서왕모 이미지의 비유적 기능과 이를 통해 표현되는 역설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 唐詩, 西王母와 不死, 西王母와 帝王, 조월적 미의 비유, 장생의 비유, 아이러니

##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II. 唐詩 속 西王母의 이미지와 아이러니 |
| II. 唐代 이전까지 형성된 西王母의 이미지 | IV. 맺음말                  |

## I. 머리말

西王母는 중국 신화전설 속의 대표적인 女仙으로서 고대 신화전설 속에서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신선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라 함은 고대인들의 원시적 사유에 의해 창조된, 아직 문명화의 윤색을 거치지 않은 모습을 말하며 중국 문화의 경우 신선설화가 아직 道教로 완전히 흡수되기 이전의 모습을 의미한다. 西王母는 ‘王母’·‘金母’·‘王母娘娘’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명칭의 다양성은 중국문화 속에서 서왕모라는 존재의 역사성과 친근성을 반증한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탄생한

\* 본 논문은 2015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檀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연구전담 조교수 / zheneugean@hanmail.net

신화적 존재 중의 하나인 서왕모는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거쳐 唐代에까지 살아남아 그 시대의 詩歌에 풍부한 지양분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왕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서왕모와 관련된 신화와 신앙의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왕모는 물론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唐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당시 속 서왕모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시 속 서왕모의 이미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서왕모의 이미지가 당시 속에서 어떠한 방식과 의미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Ⅱ에서는 唐代 이전까지 서왕모의 이미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서왕모의 원시적 이미지 속에서 이후 이미지의 분화와 발전에 기초가 된 근원적 이미지를 분석해보고 이후 이것의 확장과 변화의 추이를 추적해 보겠다. Ⅲ에서는 『全唐詩』 중에서 ‘西王母’와 ‘王母’를 키워드로 추려낸 137수를 바탕으로 서왕모 이미지와 그 활용의 특징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唐詩 속 서왕모의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그 시대의 서정과 사상의 일단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 Ⅱ. 唐代 이전까지 형성된 西王母의 이미지

서왕모에 대한 기록들은 고대 문헌 속에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서왕모의 초기 모습을 비교적 완전하게 담고 있는 최초의 기록은 『山海經』이다. 『山海經』은 그 성립시기에 대하여 西周(B.C. 12세기)부터 魏晉(A.D. 3~4세기)까지 큰 편차의 견해들이 존재하며 각 권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sup>2)</sup> 그러나 서왕모의 형상만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山海經』은 아직 완전히 문명화되고 인격화 되지 않은 고대 신앙 속의 서왕모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山海經』을 시작으로 초기 서왕모의 형상에서부터 魏晉南北朝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漢武內傳』 속 서왕모의 모습을 짚어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이미지들의 축적으로 진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1. 초기 신화 속 서왕모

고대인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지리서의 일종인 『山海經』에는 산과 강, 연못과 같은 자연지형물과 함께 그 안에 살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기록들이 함께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서왕모는 서쪽에 사는 신선으로서 崑崙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거주한다. 그 이름에도 보존되어 있듯이 지리적으로는 서쪽 방향을 상징

1) 국내 서왕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화상석과 도상, 신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문학 속의 서왕모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은 육완정, 「西王母神話의 文學的 受容」(『인문과학연구논총』 13, 1995)이 있는데 서왕모와 관련된 志怪小說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외 최근의 연구로는 唐詩 속의 서왕모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邱陽의 「唐詩中西王母意象的及成因解析」(吉林師範大學 學報, 第6期, 2013)가 있다.

2) 『山海經』의 성립시기에 관한 논의는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2005, 23~26쪽 참고.

하며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성’과 ‘모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왕모 형상의 묘사만으로는 그녀의 여성성과 모성의 특성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山海經·西山經』

“또 서쪽으로 삼백 오십 리를 가면 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왕모가 사는 곳이다. 서왕모는 그 모습이 사람과 같은데 표범의 꼬리와 호랑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휘파람을 잘 불었다. 봉두난발한 머리에는 머리꾸미개를 쓰고 있다. 하늘의 災害와 疫病, 五刑을 주관한다(又西三百五十里, 曰玉山, 是西王母所居也. 西王母其狀如人, 豹尾虎齒而善嘯, 蓬髮戴勝, 是司天之厲及五殘).”<sup>3)</sup>

『山海經·大荒西經』

서해의 남쪽에 流沙의 물가, 적수의 뒤, 흑수의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곤륜구라고 부른다. ……그 아래 약수연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에는 염화산이 있는데 물건을 던지면 즉시 태워버린다. (그곳에)어떤 사람이 있는데 머리꾸미개를 쓰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꼬리를 하고서 동굴 속에 산다. 그를 서왕모라고 부른다. 이 산에는 오만가지가 다 있다(西海之南, 流沙之濱, 赤水之後, 黑水之前, 有大山, 名曰崑崙之丘. ……其下有弱水之淵環之, 其外有炎火之山, 投物輒然. 有人. 戴勝, 虎齒, 有豹尾, 穴處, 名曰西王母. 此山萬物盡有).

『山海經·海內北經』

서왕모는 작은 안석에 기대어 있는데 머리꾸미개를 하고 있다. 남쪽에는 세 마리 검푸른 까마귀가 있는데 서왕모를 위해 음식을 마련한다. 곤륜허의 북쪽에 있다(西王母梯几而戴勝杖. 其南有三青鳥, 爲西王母取食, 在崑崙虛北).

이상의 기록에서 서왕모는 봉두난발을 한 채로 옥으로 만든 머리꾸미개를 하고 있는 半人半獸의 기이한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西山經』에서는 사람을 닮은 ‘동물적인 특성’이 강하며 하늘의 재해와 五刑을 주관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大荒西經』에는 ‘동물적인 특성’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서왕모의 초기 형태는 태초의 미분화된 세계와 유사하다. ‘인간’과 ‘동물’, ‘신’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남녀’의 성의 구별도 분명하지 않다. 이후 이 속성들 중 일부는 약화되고 일부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서왕모의 이미지는 진화하게 된다. 아직 분리되지 않은 혼돈된 형태의 원시적 서왕모의 이미지가 바로 다양한 서왕모의 이미지들이 분화되어 진화될 수 있는 씨앗이 된 것이다.

2. 不死를 선물하는 女神으로의 변모

『莊子·大宗師』에는 “서왕모는 도를 얻어 소광산에 거처하는데 그 시작도 알 수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다

3) 본고에 인용된 『山海經』 속의 원문과 번역은 羅夢山이 編譯한 『山海經』(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을 저본으로 하였다.

(西王母得之, 坐乎少廣, 莫知其始, 莫知其終).”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그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곧 ‘生’과 ‘死’를 말하는 것으로 서왕모가 도를 얻어 장수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왕모가 도교와 민간신앙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이 ‘不死’의 이미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서왕모에게 공고한 ‘不死’의 이미지가 더해진 것은 그녀가 살고 있었던 ‘崑崙’라는 공간과 ‘羿와 관계된 설화’의 영향이 크다. 『山海經』에서 서왕모는 곤륜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불사의 공간이기도 하다. <淮南子>에는 불사의 공간으로서 곤륜산의 지리가 묘사되어 있으며羿에 관한 설화도 일부 남아있다.

### 「淮南子·地形訓」

곤륜의 언덕에서 두 배 위로 올라가면 양풍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오르면 죽지 않는다. 다시 두 배 위로 올라가면 현포라는 곳이 나타나며 그곳을 오르면 이내 신령해져 바람과 비를 부릴 수 있게 된다. 다시 두 배 위로 올라가면 하늘과 이어지는데 그곳에 오르면 이제 신선이 될 수 있는데 바로 태제가 거거하는 곳이다.<sup>4)</sup>(崑崙之邱, 或上倍之, 是謂涼風之山, 登之而不死. 或上倍之, 是謂縣圃, 登之乃靈, 能使風雨, 或上倍之, 乃維上天, 登之乃神, 是謂太帝之居.)

### 「淮南子·覽冥訓」

“제가 서왕모에게 불사의 약을 구해왔는데 항아가 그것을 훔쳐 먹고 달로 달아났다”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姮娥竊以奔月.)

불사의 공간에서 살면서 ‘不死’의 영약을 보관하고 있는 여신의 이미지는 漢代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司馬相如가 漢武帝에게 바친 「大人賦」<sup>5)</sup>에서 서왕모는 『山海經』 속의 야성적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山海經』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長生不死’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漢代에 서왕모는 사회 계급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신선이 될 수 있었다. 漢代 무덤에서 출토된 화상석과 당시의 서왕모를 향한 민간의 신앙들에 대한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sup>6)</sup> 서왕모가 ‘不死’의 이미지를 얻게 된 보다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가 ‘서쪽’에 있었다는 점과 ‘母性’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7)</sup> 실제로 漢代까지만 하더라도 서쪽은 불모의 땅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4) 劉安 著, 이석명 譯, 『淮南子』, 서울: 소명출판, 2010, 254~255쪽. 이 책의 원문은 1875년 陶方琦에 의해 새롭게 교정된 莊遠吉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5) “음산을 낮게 휘돌아 구불구불 날아가다가 나는 오늘 서왕모를 보았다네. 눈부신 백발에 머리꾸미개를 쓰고 동굴에 살면서 세 발 까마귀를 부리고 있다네. 분명 이렇게 길이 살며 죽지 않는다면 만세를 산다한들 기쁠 리 없으리(低徊陰山翺以紆曲兮, 吾乃今日觀西王母. 隴然白首戴勝而穴處, 亦幸有三足烏爲之使. 必長生若此而不死兮, 雖濟萬世不足以喜.)”

6) “4년 봄 큰 가뭄이 겼다. 관동 백성들이 서왕모의 산가지를 들고 행진하여 군국들을 거쳐 서쪽을 향해 가면서 장안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모여서 서왕모에게 제사를 올거나 햇불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四年春, 大旱. 關東民傳行西王母壽, 經歷郡國, 西入關至京師. 民又會聚祠西王母, 或夜持火上屋, 擊鼓號呼相驚恐).”, 『漢書』, 「哀帝紀」.

7) 漢代를 기준으로 보면 서왕모에 대한 문헌기록은 주로 전반기에 치중되어 있고 漢代 후기에 이르면 문헌기록은 사라지고 주로 유물들에서 서왕모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漢代 후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거울과 화상석의 주요 모티프는 서왕모로 漢代 서왕모 화상석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漢代에는 정치적 불안과 자연 재해 등의 원인으로 流民들 사이에서 소요에 가까운 서왕모 숭배 활동이 일어났으며 서왕모는 불사의 여신으로서 확고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아울러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전통적으로 ‘죽음’의 속성을 내포한다. 여기에 서왕모의 이름 자체에 보존된 ‘母性’ 곧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는 속성이 그녀를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 ‘不死’의 仙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 3. 인간 제왕과 교류하는 여신

西王母는 인간 제왕과 교류한 여신이다. 그녀는 黃帝와 舜, 周 穆王과 漢 武帝를 만났다.<sup>8)</sup> 이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후대 문학 작품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것은 周 穆王과 漢 武帝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다. 목왕과 만남은 『列子』와 『穆天子傳』<sup>9)</sup>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穆天子傳』의 경우 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설로서 서왕모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그려져 있으며 『漢武內傳』<sup>10)</sup>은 이 보다 더욱 발전한 소설이 형식과 구체적인 문체로 서술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서왕모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 (1) 周 穆王과의 만남

먼저 西王母와 周 穆王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에 서왕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보자.

#### 『列子·周穆王』

(주 목왕은)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신점들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자 내키는 대로 멀리 유람을 떠나고 싶어졌다. ……다른 날 곤륜의 언덕에 올라 황제의 궁궐을 둘러보고 그곳에 돌을 쌓아 후세에 게 알릴 표식을 세웠다. 서왕모의 손님으로 가 요지에서 술잔을 나누었다. 서왕모가 왕을 위해 노래를 하고 왕이 이에 화답하였는데 그 노래 가사가 구슬뿔다. 이윽고 해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으니 하루에 만 리를 달린 것이다. 왕이 이내 탄식하며 말했다. “아아! 나 이 사람은 덕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즐거움만 누리니 후세에 나의 과오를 추궁하겠구나!”<sup>11)</sup>

대해서는 『漢書』에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유강하, 「漢代 西王母 畫像石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3~104쪽 참고.

8) 『集仙錄』(『太平廣記』, 卷5, 神仙)에는 西王母가 黃帝의 蚩尤 토벌을 돕기 위해 여우갓옷과 부직 및 仙書를 준 이야기와 舜 임금에게 白玉環과 白玉瑁를 선물하였다는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출처인 『壙城集仙錄』의 저작과 그 제작 시기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며 이것이 『漢武內傳』을 답습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이 태평광기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는 唐宋 시기에 서왕모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유전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9) 戰國시대 후기(B.C. 403~221)에 周穆王의 원유에 대한 전설이 죽간에 기록된 것으로 전국시대 말에 汲郡(지금의 河南省 汲縣) 魏王 중 한명의 무덤에 수장되었다가 279년경에 발견되었다. 현존하는 『穆天子傳』 6권은 汲冢에서 발견된 蝌蚪文으로 기록된 죽서 『周王遊行』을 漢 武帝(265~290)의 명에 의해 荀勗이 隸書로 옮겨 정리하고 뒤에 郭璞이 주석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10) 『漢武內傳』의 저작에 대해서는 明清代 판본 중에 班固와 葛洪을 작가로 표기한 경우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진남북조시기 도교 上清派 중의 한 사람의 저작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11) “不恤國事，不樂臣妾，肆意遠遊。……別日升崑崙之丘，以觀黃帝之宮，而封之，以詒後世。遂賓於西王母觴於瑤池之上。西王母爲王謠，王和之，其辭哀焉。乃觀日之所入，一日行萬里。王乃歎曰：‘於乎！予一人不盈於德而諧於樂，後世其追數吾過乎！’”，『列子』, 卷三, 「周穆王」.

『穆天子傳』에서 서왕모는 주 목왕을 맞이한다. 서쪽의 女仙와 동쪽의 인간 제왕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穆天子傳』 중 목왕과 서왕모의 만남을 서술한 부분이다.

### 『穆天子傳』<sup>12)</sup>

길인인 갑자일에 천자가 서왕모를 방문했다. 백규와 현벽을 가지고 가 서왕모를 만났다. 수를 놓은 비단 끈 백순과 비단 삼백순을 바쳤다. 서왕모가 재배하고 이것을 받았다. 을축일 천자가 요지 위에서 서왕모에게 술을 따라 서왕모가 천자를 위해 노래했다. “흰 구름이 하늘 위에 떠있고 산 능성이 그 속에서 나오네. 갈 길 아득히 멀기만 한데 산과 내가 그 사이를 가로 막고 있구나. 그대 창자 죽지 말고 부디 다시 오소서.” 천자가 이에 대답하였다. “나는 동토로 돌아가 화하를 잘 다스려 만백성이 모두 잘 살 수 있게 한 뒤 그대를 보러 오겠소. 3년 안에 다시 이 들판으로 돌아오겠소.” 천자는 말을 몰아 奔山에 올랐다. 그리고 엄산의 돌에 그 공적을 새기고 피나무를 심었다. 가장자리에 서왕모의 산이라고 적었다. [서왕모는] 서왕모의 산에서 다시 돌아와 그녀의 들판으로 갔다.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천자가] 노래하였다. “서쪽 땅에 가면 그 들판에서 살리라. 호랑이와 어울리고 까마귀와 함께 살리라. 아름다운 천명은 옮겨가지 않으니 오로지 내가 천제의 자손이다. 위대한 명을 받았으나 능력이 걸맞지 않네. 세상의 백성의 사람을 돌아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생황을 부니 마음이 복받친다. 세상 백성의 자식이 오로지 하늘의 희망이네.”<sup>13)</sup>

이상의 두 인물의 만남의 장면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서왕모가 목왕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시를 나누는 등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신비로운 신선이었던 서왕모는 어느덧 천자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다가온 것이다. 그녀가 재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부분에서는 이전에 없던 뚜렷한 여성성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선계의 지고의 존재인 서왕모가 인간세계의 존엄인 목왕의 베필처럼 묘사된 것이다. 『穆天子傳』의 또 다른 판본인 『四部備要』에서는 재회의 소망을 말하는 화자를 서왕모로 그리고 있다.

서왕모가 천자를 위하여 노래하였다. “저기 서쪽 땅으로 가서 그 들판에서 살아요. 호랑이 표범과 무리 짓고 까치 까마귀와 함께 살아요. 훌륭한 뜻은 변치 않으리 나는 천제의 딸이니까요. 그 곳은 어떤 세상의 백성이기에 또 그대를 떠나려 하나요. 생황을 부니 마음이 날갯짓 치는 듯 듯해요. 세상 백성들의 아들은 하늘의 희망이에요.”<sup>14)</sup>

12) 『欽定四庫全書』, 『穆天子傳』, 卷三, 郭璞 注. 본문의 원문과 번역은 이은상, 『穆天子傳 研究』(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를 참고하였다.

13) “吉日甲子, 天子賓于西王母. 乃執白圭玄璧以見西王母, 好獻錦組百純, □組三百純, 西王母再拜受之. □. 乙丑, 天子觴西王母于瑤池之上. 西王母爲天子謠曰: ‘白雲在天, 山陵自出. 道里悠遠, 山川間之. 將子無死, 尚能復來.’ 天子答之曰: ‘予歸東土, 和治諸夏. 萬民平均, 吾顧見汝. 比及三年, 將復而野.’ 天子遂驅升于奔山. 乃紀其跡于奔山之石, 而樹之槐. 眉曰西王母之山. 西王母之山還歸川□. 世民作憂以吟曰: ‘但徂西土, 爰居其野. 虎豹爲群, 於鵲與處. 嘉命不遷, 我惟帝天子. 大命而不可稱, 顧世民之恩, 流涕崑隕. 吹笙鼓簧, 中心翔翔. 世民之子, 唯天之望.’”, 『穆天子傳』.

14) “西王母又爲天子吟曰: ‘但徂西土, 爰居其野. 虎豹爲群, 於鵲與處. 嘉命不遷, 我惟帝女. 彼何世民, 又將去子. 吹笙鼓簧, 中心翔翔. 世民之子, 惟天之望.’”, 『四部備要』.

여기서는 서왕모가 스스로를 天帝의 딸이라고 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穆王에게 자신의 서쪽 세계로 와서 함께 살 것을 권유하며 穆王의 왕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천제의 딸이라는 서왕모의 神格은 穆王의 천부적 지위와 권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가 畀山에 올라 돌에 그의 공적을 기록하고 돌의 가장자리에 ‘서왕모의 산(西王母之山)’이라고 새기는 행위는 마치 정복자가 기념비를 남기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처럼 『穆天子傳』 속의 서왕모는 주 목왕동쪽-남성-인간의 제왕의 상대적 존재로서 [서쪽-여성-천제의 딸]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목왕의 방문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그를 접대하며 그를 축복하고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과 연정을 표현하는 여성으로 묘사됨으로써 서왕모는 불가침의 신성과 위엄을 가진 仙界의 仙人에서 인간과 왕래가 가능하며 여성적인 인성을 지닌 신선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 이전의 기록들의 묘사에서 그녀의 모습에서 뚜렷한 여성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여 목왕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여성성이 확고해 진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 (2) 漢 武帝와의 만남

서왕모와 인간 제왕과의 만남을 소재로 한 이야기 중 唐代 시인들에 의해 가장 애용되었던 것은 漢 武帝와 西王母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의 만남에 대한 기록은 『漢武故事』·『漢武內傳』·『漢武洞冥記』 등에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漢武內傳』은 武帝의 출생에서부터 사후까지 神仙 仙道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왕모와의 만남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sup>16)</sup> 『漢武內傳』의 작자와 저작시기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데 明清 시기 漢 班固의 저작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후인의 기탁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sup>17)</sup> 『穆天子傳』이 주 목왕의 원유의 여정을 차례대로 서술한 것이라면 『漢武內傳』은 한 무제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일대기에 대한 서술이다. 『穆天子傳』 속 서왕모의 만남은 원유과정 중의 사건 중 한 과정이지만(물론 목왕과 서왕모의 만남이 『穆天子傳』에 기록된 원유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 의미를 차지하지만) 한무제와 서왕모의 만남은 신선술에 심취해 있던 한 무제의 일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있다. 서왕모와의 만남을 묘사한 이 두 작품 속 서왕모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서왕모 이미지의 발전 양상이 보인다. 분석과 서술의 편의상 이를 ‘외형·神格·인간 제왕과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漢武內傳』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왕모의 외형이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서른 남짓의 매우 아름답

15) 이은상은 목왕이 서왕모를 찾자간 목적은 “모태로의 회귀를 통한 우주질서의 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莊子』나 『山海經』 속 서왕모와 관계된 勝과 瑤池 등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여 그녀가 “우주축인 곤륜산과 연결되어 우주의 혼돈과 창조를 통한 질서의 회복을 주관하는 여신”이라는 점을 들었다(이은상, 『穆天子傳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78쪽).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왕과 서왕모의 만남이 “태양이 뜨는 동쪽-陽-태양-남성의 상응 관계를 보여주는 동쪽의 제왕과 해가 지는 서쪽-陰-달-여성의 상응관계를 나타내는 서쪽 여신의 만남”이라고 결론지었다(이은상, 위 책, 184쪽). 唐詩 중에서는 穆王과 西王母의 만남을 전고로 이용한 작품들이 눈에 띄지만 당대 시인들이 그 ‘우주질서의 재생을 위한 만남’이라는 상징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징의 해석을 단순화 시켜 목왕이라고 하는 역사 속 실존했던 제왕의 전하 유람과 이를 위해 조력했던 八駿馬 그리고 서왕모라는 ‘여성’ 신선의 만남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16) 본고에서는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춘 판본으로 알려진 錢熙祚이 校證한 『守山閣叢書』를 참고하였으며 이후 예시로 든 구절들의 원문도 이를 저본으로 삼았다.

17) 근래는 이것이 魏晉南北朝 시기의 저작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漢末 저작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문체와 구성의 측면에서 『穆天子傳』보다는 이후 시기의 저작임은 분명해 보인다. 王枝忠, 『漢魏六朝小說史』,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7, 40-42쪽.

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녀가 착용한 복장과 장식은 그녀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왕모가 전에 올라 동쪽을 향해 앉았다. 황금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그 문양과 빛깔이 선명하고 빛나는 의용이 맑고 위엄 있었다. 신선의 큰 끈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분경검을 차고 머리에는 태화 상투를 틀고 태진신영 관을 썼다. 검은 옥에 봉황무늬가 수놓인 신을 신고 있었다. 서른 살 정도로 보였고 키가 적당하고 타고난 자태가 향기롭고 온화하였으며 얼굴은 절세의 미인으로 진실로 신령스러운 사람이었다.

(王母上殿東向坐, 著黃金裕襪, 文采鮮明, 光儀淑穆. 帶靈飛大綬, 腰佩分頭之劍, 頭上太華髻, 戴太真晨嬰之冠, 履元璫鳳文之舄. 視之可年三十許, 修短得中, 天姿掩藹, 容顏絕世, 真靈人也.)

둘째, 『漢武內傳』속 서왕모의 神格은 그녀의 장엄한 강림 장면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녀가 거느리고 내려온 신선세계의 官屬과 靈物들은 신선세계에서의 그녀의 권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경이 지난 후에 홀연히 서남쪽에서 마치 흰 구름이 솟아오르는듯하더니 이내 궁정을 향해 곧장 내려왔다. 잠깐사이에 가까워지더니 구름 속에서 피리와 북 소리, 사람과 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반食頃 만큼 시간이 가고 나서 왕모가 도착했다. 궁전 앞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새떼와 같았다. 흑자는 용과 호랑이를 몰고 흑자는 사자를 타고 흑자는 백호를 몰고 흑자는 흰 기린을 타고 흑자는 흰 학을 부리며 흑자는 마차를 타고 흑자는 천마를 타고 있었는데 그 신선의 무리가 수만에 이르러 궁정이 휘황찬란하였다. 왕모가 도착하자 따르던 천관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왕모가 아홉 빛깔 용이 끄는 자춧빛 구름 마차에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외 오십 명의 천선이 난새가 끄는 수레 옆에 서있는데 모두 키가 한 장을 넘어 보였으며 오색빛깔의 깃발을 들고 금강으로 된 신령스러운 도장을 차고 있었으며 천진관을 쓰고 궁전 앞에 서있었다. 왕모는 두 시녀만의 부축을 받으며 전에 올랐다. 시녀들은 열여섯 일곱 살 정도로 푸른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과 눈매가 매우 또렷하고 신령한 자태가 맑게 풍기는 진정한 미인이었다.<sup>18)</sup>

겉으로 드러나는 신격 외에도 그녀의 神格과 권위는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각된다. 그녀가 시녀를 시켜 上元夫人과 靑眞小童을 불러와 무제에게 선도를 전수하라고 명을 내리는 장면은 그녀가 천계에서 차지하는 서열과 권위를 보여준다.

셋째, 한무제와의 관계에서 서왕모는 선도의 전수자이자 증계자 더 나아가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진다. 서왕모는 무제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끄는 적극적이고 위엄을 갖춘 존재로 묘사되며 직접 신

18) “至二唱之後, 忽天西南, 如白雲起, 鬱然直來, 逕趨宮庭, 須臾轉轉, 聞雲中蕭鼓之聲, 人馬之響. 復半食頃, 王母至也. 縣投殿前, 有似鳥集. 或駕龍虎, 或乘獅子, 或御白虎, 或騎白麟, 或控白鶴, 或乘軒車, 或乘天馬, 群仙數萬, 光耀庭宇. 既至, 從官不復知所在, 唯見王母乘紫雲之輦, 駕九色斑龍. 別有五十天仙, 側近鸞輿, 皆身長一丈, 同執綵毛之節, 佩金剛靈璽, 戴天眞之冠, 咸住殿前. 王母唯扶二侍女上殿, 年可十六七, 服青綾之袿, 容眸流眇, 神姿清發, 真美人也.”

선들을 초청하고 설득하여 무제에게 선도를 전수하도록 중재자적인 역할을 한다. 『穆天子傳』 속의 서왕모가 신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가진 여성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것과 비교했을 때 신선으로서의 성격과 위엄이 더욱 보강된 모습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漢武內傳』 속 서왕모는 직접 王子登을 보내 강림할 것을 알리고,<sup>19)</sup> 한무제를 질책하며 교시를 내리며<sup>20)</sup>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징벌을 내리는<sup>21)</sup> 절대적 신격을 가진 존재이다. 『穆天子傳』에게 목왕의 장수를 축복하고 재회를 희망하는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서왕모는 이와 같이 『漢武內傳』을 통하여 한층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발전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신선세계를 호령하는 위엄과 권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 제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長生’의 비법을 전수하는 전수자이자 그의 과오를 꾸짖으면서도 그를 변호하는 엄하면서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서왕모는 『漢武內傳』을 거쳐 더욱 인간에게 친숙하고 아름다우며 장생의 비법을 보존한 여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 
- 19)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다. 푸른 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매우 아름다웠다. 무제가 놀라서 그녀에게 묻자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는 용궁 옥녀 왕자등이라고 합니다. 서왕모의 사신으로 있사온데 곤륜산에서 왔습니다.’ 황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세상의 록을 가버어 여기고 선도와 장생을 구하기 위하여 제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누차 산악에서 제사를 올린다고 들었기에 그 근면함이 가히 가르칠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재계하며 속세의 일을 그만두십시오. 7월 7일에 왕모께서 잠시 왕림하실 것입니다.’ 무제가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응답하였다(忽見一女子, 著青衣, 美麗非常, 帝愕然問之, 女對曰: “我墉宮玉女王子登也. 向爲王母所使, 從崑山來.” 語帝曰: “聞子輕四海之祿, 尋道求生, 降帝王之位, 而屢禱山嶽, 勤哉. 有似可教者也. 從今百日, 清齋不閑人事, 至七月七日, 王母暫來也.” 帝下席跪諾.), 『漢武內傳』.
- 20) “서왕모가 말했다. ‘그대가 영예로움을 천히 여기고 비천함을 즐길 수 있다면 허정함에 탐닉하고 도를 음미한다며 저절로 아름다운 경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방자하고 육욕에 빠져 지나치게 음란하며 법도에 어긋날 만큼 살육과 정벌을 즐기며 사치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자함은 그 몸을 찢는 수레가 될 것이며 음란함은 수명을 쪼개는 도끼가 될 것입니다. 살육은 곧 그 대가로 돌아오고 사치는 마음을 문드러지게 하며 탐욕은 정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움이 축적되면 생명이 단축되고 그대의 보잘 것 없는 몸 안에 육체를 멸망시키는 해로움이 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어지러움을 씻어 내고 더러움을 뽑아내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정기를 단전에 보존할 수 있다면 음공을 달아버리고 각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침실의 사치를 정숙하게 바꿀 수 있다면 중생을 사랑하고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도의 계율을 지킬 수 있다면 신령한 맛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힘쓴다면 정기를 수련하고 허영을 물리칠 수 있다면 모든 경쟁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만약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어찌 그렇게 되지(선도를 얻는 것)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행하지 못한다면 돌덩이를 안고 긴 물가를 건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王母曰, “女能踐榮樂卑, 耽虛味道, 自復佳耳. 然女情恣體慾, 淫亂過甚, 殺伐非法, 奢侈其性. 恣則裂身之車, 淫爲破年之斧, 殺則響對, 奢則心爛, 慾則神隕. 聚穢命斷, 以子叢爾之身, 而宅滅形之殘. ……若能蕩此衆亂, 撥穢易韻, 保神炁於絳府, 閉淫宮而開悟, 靜奢侈於寂室, 愛衆生而不危, 守茲道戒, 思乎靈味務施惠和, 練惜精氣, 棄卻浮麗, 令百競速游, 女行若斯之事, 豈無彷彿也? 如其不爾, 無爲抱石而濟長津矣?”), 『漢武內傳』.
- 21) “황제가 비서를 받은 후 6년이 지나자 스스로 고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였다. 신선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력을 강건하고 사납게 하여 지고의 계율을 닦지 않았다. 누대와 궁전을 세우느라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였으며 항복한 병졸들을 생매장시켜 죽이고 오랑캐 원정을 나서느라 길 위에는 원망의 한탄이 넘쳤으며 도성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이렇게 매사 왕모의 심오한 말씀과 상원부인의 오묘한 계율을 따르지 않자 두 선인은 두 번 다시는 왕림하지 않았다. 태초 원년 11월 을유일에 하늘의 불이 백양대를 불태웠다(帝自受書已來, 出入六年, 高韻自許. 以爲神眞見降, 必當度世. 強悍氣力, 不修至誠, 迺興起臺館, 勞弊百姓, 坑殺降卒, 遠征夷狄, 路盈怨歎, 流血卓城, 每事不從王母之深言, 上元夫人之妙誠. 二眞遂不復來也. 到太初元年十一月乙酉, 天火燒柏梁臺.), 『漢武內傳』.

### Ⅲ. 唐詩 속 서왕모의 이미지와 아이러니

唐代 이전까지 西王母는 원시 신화 속 신선의 모습에서 魏晉南北朝 시기 志怪類의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신선세계의 여왕의 모습으로 발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唐代 시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서왕모의 이미지를 빌려와 비유적 언어로 활용하여 그들의 미적 체감과 관념들을 표현하였다. 서왕모의 이미지가 보조관념으로 역할을 할 때 어느 대상과 비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비교의 근거는 유추이며 이는 둘 사이에 유사성 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왕모는 서쪽 신선세계의 여왕으로서 여기에는 [長生の 주관자 - 신비로움 - 위엄 - 아름다움 - 여성성] 등의 이미지들이 혼합되어 있다. 서왕모가 어떤 대상과 비유관계를 형성할 때 이 두 대상의 속성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각각의 대상들이 가진 모든 속성들이 일대일로 대응될 수도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두 대상 사이의 불일치, 그 틈이 더욱 풍부한 시적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풍자의 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당시 속에서 서왕모의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비유적 언어가 내포하는 의미와 미적 기능을 살펴보고 하겠다.

#### 1. 美의 상징

『산해경』에서 서왕모는 半人半獸의 형상에 남녀의 구분도 명확치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에서의 서왕모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서왕모가 원시 신화 속 존재에서 차츰 문학 속의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인간 제왕과 어울릴 만한 미녀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仙’은 불사의 존재라는 속성과 함께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가진 존재라는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 속에서 서왕모의 이미지는 『漢武內傳』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다. 人神 간의 교류가 남성인 제왕과 여성인 여신의 모습으로 설정되면서 신선의 여왕의 신분에 어울리는 고귀함과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당대 시인 중에서도 李白은 서왕모의 이미지를 가장 자주 사용한 시인이다.

##### (1) 美人 이미지

雲想衣裳花想容,  
春風拂檻露華濃.  
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구름은 치마저고리 생각나게 하고 꽃은 얼굴 생각나게 하는데  
봄바람이 난간을 스치고 이슬 맺힌 꽃잎은 화려하고 농염하구나.  
군옥산 머리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요대의 달 아래에서라도 만나게 되리라.

- 李白, 「清平調」, 其一 중에서<sup>23)</sup>

22) 김준오, 『詩論』, 서울: 삼지원, 2007, 174~175쪽 참고.

23) 『全唐詩』, 164권.

李白의 「清平調」 중 첫 수인 이 작품은 牧丹을 찬미하기 위하여 玄宗의 명을 받아 지은 작품으로 목단을 양귀비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에서 '王母'는 楊貴妃의 비유이지만 아울러 군옥산에 머물며 요대에서 인간제왕을 만난 서왕모도 함께 연상시킨다. 붉은 목단의 신비롭고 고귀한 모습을 양귀비에 빗대고 이것을 다시 서왕모와 연관시킨 것이다. 목단에 대한 연모의 마음은 서왕모와의 재회를 고대하는 목왕과 무제의 고사를 연상시키며 더 나아가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목단의 색채와 꽃잎의 모양은 구름 같은 옷을 입고 꽃 같은 얼굴을 한 양귀비와 신화 속 서왕모의 이미지와 연관되면서 춘심을 동요케 하는 미인의 이미지로 그려졌다. [목단-양귀비-서왕모가 공통적으로 가진 '아름다움'의 속성에 신선이라는 신비로운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목단을 바라보는 이가 느끼는 흥모와 동경 등의 정서적 반응까지도 함께 묘사된 것이다. 이렇게 서왕모의 '미녀'의 이미지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는 당시 속에서 즐겨 사용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다.

“서리를 보는 듯 하얀 자태에 달을 보는 듯 한 광채와 곡선(似見霜姿白, 如看月彩彎)”<sup>24)</sup>

“그대 서왕모를 보게되리 천 세에 아름다운 용안을(君看西王母, 千載美容顏)”<sup>25)</sup>

“왕모는 어찌 그리 그윽하고 고운지 옥 같이 맑고도 부드럽네(王母何窈眇, 玉質清且柔).”<sup>26)</sup>

唐代 이전까지 형성되어 온 빼어난 미녀의 이미지가 唐詩 속 서왕모의 이미지에도 그대로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초의 여성적이고 중성적인 이미지는 어느 덧 사라지고 인간의 이상적 미의 동경에 부합하는 여신의 이미지가 志怪 小說類의 문학 작품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당시에 이르러 하나의 비유로 활용 된 것이다.

## (2) 초월적 미의 이미지로 확장

한 무제와 서왕모의 고사 속에서 서왕모는 그녀가 仙界로부터 이끌고 온 天官이나 仙女·神物·음악·음식 등을 통해 초월적인 위엄과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되도록 묘사되었다. 이러한 서왕모와 관련된 신선세계의 인물이나 물상들은 唐詩 속에서 현실 대상의 초월적 아름다움에 대한 비유로 활용되기도 한다. 劉禹錫의 「백락천의 석지에 화답하며(和樂天柘枝)」<sup>27)</sup>에서는 석지무를 추는 무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왕모와 연관시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柘枝本出楚王家,	석지는 본래 초나라 왕가에서 나왔다더니
玉面添嬌舞態奢.	옥 같은 얼굴에 더해진 교태에 춤선 더 살아나네.

24) 丁澤, 「정월 일월일이에 꿈에서 서왕모가 백옥환을 바치다(上元日夢王母獻白玉環)」, 『全唐詩』 281권.

25) 儲光義, 「田家雜興, 八首之四」, 『全唐詩』, 137권.

26) 劉復, 「遊仙」, 『全唐詩』, 305권.

27) 『全唐詩』, 360권. 柘枝舞는 西域에서 유래한 獨舞이다. 『太平御覽』, 樂部十二, 「舞」에 “『乐苑』曰: 羽调有『柘枝曲』, 商调有『掘柘枝』, 此舞因曲为名. 用二女童, 鲜衣帽, 帽施金铃, 口转有声. 其来也, 於二莲花之中藏之, 花坼而後见. 对舞中之雅妙者也.”라는 기록이 있다.

鬆鬢改梳鸞鳳髻，  
新衫別織鬥雞紗。  
鼓催殘拍腰身軟，  
汗透羅衣雨點花。  
畫筵曲罷辭歸去，  
便隨王母上煙霞。

형클어진 머리에 새로 빗질하여 난새봉황 상투를 들고  
새 적삼은 특별히 투계사로 짚다네.  
북소리 다급하다 잦아드니 춤추는 허리 유연하고  
땀이 비단 옷에 배어나니 빗방울이 꽃에 맺히는 듯.  
그림 대자리 위 음악이 끝나자 물러나 돌아가니  
이내 서왕모 따라 노을 구름 속으로 올라가네.

이 구절은 서역 지방에서 들어온 석지무를 추는 무녀의 모습과 그에 대한 감상을 묘사한 것으로 격렬한 북소리와 요염하면서도 정렬적인 춤사위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서쪽의 신선인 서왕모와 연관시켰다.

朱絃動瑤華，  
白羽飄玉京。  
因想羨門輩，  
眇然四體輕。  
子喬翔鄧林，  
王母遊層城。

붉은 현은 요지를 울리고  
하얀 깃는 옥경산에 휘날리네.  
자문선녀를 떠올리니  
아득히 사지가 가벼워지네.  
왕자교가 신선 숲 위로 날아오르고  
서왕모가 곤륜산 궁전 위에 노니네.

- 顧況, 「왕랑중이 거문고와 학을 준 것에 감사하며(謝王郎中見贈琴鶴)」 중에서

顧況은 거문고의 빼어난 소리를 요지에 울리는 음악소리로 학의 순백의 깃털을 곤륜산 위를 나는 선학으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상을 왕자교와 서왕모의 표연한 자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미적 체험에 의해 시인의 마음속에 연상된 서왕모의 이미지를 다시 가시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감상을 풍부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서왕모와 관련된 물상 중에서도 단연 당대 시인들의 관심을 받을 것은 복숭아이다. 이 복숭아는 한 무제 고사에서 등장하는 선계에서만 자라는 천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 진귀한 과일이다. 서왕모의 복숭아는 그 개화와 결실의 시기 덕분에 장고한 시간의 비유로 사용되지만 이와 동시에 서왕모의 열매라는 점에서 세상에 없는 진귀한 가치와 아름다운 과실을 대표하며 나아가 무병장수를 선물하는 선약과 같은 과실로도 묘사된다.

王母階前種幾株，  
水精簾外看如無。  
只應漢武金盤上，  
瀉得珊珊白露珠。

왕모의 계단 앞에 심어 놓은 몇 그루,  
수정주렴에서 내다보니 아무 것도 없는 듯.  
한 무제 황금 쟁반 위에만 담아야 하리  
산호 빛 영롱하게 쏟아지는 하얀 이슬 구슬.

- 韋莊, 「하얀 앵두(白櫻桃)」 중에서<sup>28)</sup>

28) 『全唐詩』, 696권.

韋莊은 백앵두의 영롱하고 탐스러운 모습을 서왕모의 궁궐에 심겨진 복숭아와 비교하였는데 여기에는 몇 단계의 미적 연상 작용이 작동하였다. 서왕모의 복숭아는 이를 맛본 한 무제를 연상시키며 이는 그가 깨끗한 이슬을 받아 마시며 양생을 하던 承露盤을 연상시킨다. 나뭇가지에 영롱하게 맺힌 앵두를 이처럼 신화 속 이미지들로 비유함으로써 풍부한 시적 정취를 담아낸 것이다. 白居易도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서왕모의 복숭아꽃의 이미지를 빌려와 견준다.

牡丹芳, 牡丹芳, 黃金蕊綻紅玉房. 모란 향기, 모란 향기, 황금 꽃술 홍옥 꽃봉오리 터졌네.  
 千片赤英爛爛, 천 조각 붉은 꽃잎 노을처럼 찬란하고  
 百枝絳點燈煌煌. 백 줄기 가지에 진홍의 점이 등불처럼 휘황하네.  
 照地初開錦繡段, 땅을 비추며 비단 같은 몸이 피어나니  
 當風不結蘭麝囊. 바람이 불어도 난꽃 사향 향낭을 묶지 않는구나.  
 仙人琪樹白無色, 신선의 옥나무야 희멀건 할 뿐이고  
 王母桃花小不香. 서왕모의 복숭아꽃이라야 작고 향기도 없네.

- 白居易, 「모란 향기. 천자의 농사를 걱정하심을 찬미하며(牡丹芳. 美天子憂農也)」 중에서<sup>29)</sup>

아름다움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이다. 이상의 비유들은 원 대상의 아름다움을 현실세계에는 없는 이상적인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와 견줄 만한 정도의 아름다움 혹은 그것을 초월하는 정도의 아름다움으로 격상시킨다. 이것은 대상에 대하여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미적 체험을 효율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세태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백거이는 현실의 모란이 상상 속 서왕모의 복숭아꽃보다 뛰어나다고 찬양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유층의 모란에 대한 사치스러운 풍류의 폐단이다. 그는 사치스러운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농사를 걱정하는 憲宗의 덕을 찬미하는 것으로 은근한 경계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속에서 서왕모의 이미지는 초월적 아름다움의 비유로 활용되면서 대상에 대한 신비로운 미적 체험을 담아내는 풍부한 이미지가 되었다. 그리고 때로 이 이상적 아름다움의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현실을 도외시키고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담아내기도 했다.

## 2. ‘長生’을 주관하는 여신

전대에 형성된 장수를 주관하는 여신의 이미지는 唐詩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서왕모의 이미지이다.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현실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神仙術의 핵심은 신선이 되는 것이며 신선은 不死의 존재이다. 신선술의 추구는 인간의 제한적 시간, 즉 생명의 유한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全唐詩』에는 中唐의 道士인 呂巖의 작품이 107수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신선세계

29) 『全唐詩』, 427권.

에 대한 동경과 신선술에 관한 것이다.

欲隨仙侶得身輕,	신선의 짝을 따라 몸을 가볍게 만들어
飛過蓬萊徹上清.	봉래로 날아가 상청으로 통하고자 하네.
朱頂鶴來雲外接,	붉은 머리 학이 구름 밖으로 나와 맞이하고
紫鱗魚向海中迎.	자줏빛 비늘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와 맞이하네.
姮娥月桂花先吐,	항아의 월계수가 꽃을 먼저 토해내고나면
王母仙桃子漸成.	왕모의 복숭아가 점점 익어간다네.
下瞰日輪天欲曉,	해수레가 하늘을 밝히는 것을 굽어보다가
定知人世久長生.	정녕 인간 세상에서 오래도록 장생하는 법을 알았네.

- 呂巖, 「七言」, 63수 중 32수 중에서<sup>30)</sup>

위 작품 속 월궁으로 쫓겨난 항아와 천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 복숭아는 서왕모가 주관하는 '불사와 장생'과 연관되어 있다. 신선을 쫓아 올라간 세계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장생의 세계로 羲和의 해 수레가 인간의 생명을 재촉하는 인간세계와는 다른 공간이다. 여압이 그리고 있는 장생의 세계가 서왕모의 복숭아가 익어가고 그녀의 불사약을 훔쳐 먹고 신선계로 돌아온 항아가 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眾仙翼神母,	신선들 왕모를 향해 날개 짓 하니
羽蓋隨雲起.	그 날개 덮개 따라 구름이 일어난다.
上遊玄極杳冥中,	위로 현극의 어둠 속에서 노닐고
下看東海一杯水.	아래로 한 잔의 물과 같은 동해를 굽어본다.
海畔種桃經幾時,	해변에 심은 복숭아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千年開花千子.	천년마다 꽃 피고 천년마다 열매를 맺는다한다.
玉顏眇眇何處尋,	옥 같은 얼굴 아른거리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
世上茫茫人自死.	세상은 망망하고 사람들은 저절로 죽는구나.

- 韋應物, 「王母歌」 중에서<sup>31)</sup>

위응물의 「王母歌」에도 이와 유사한 상상으로 묘사된 시구가 있다. 이 작품에는 신선세계와 인간세계가 한 화면 안에 대비되어 있다. 신선들의 날갯짓을 따라 신선세계로 오르면 위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고 아래로는 한 잔의 물과 같은 동해가 펼쳐진다. 신선세계는 서왕모의 복숭아가 익어가는 곳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이는 신선세계의 제일의 특징을 불사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인은 그곳에서 옥 같은 얼굴을 한 서왕모를 찾는다. 그녀가 불사의 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생을 바라는 인간은 망연

30) 『全唐詩』, 857권.

31) 『全唐詩』, 194권.

히 서왕모를 기다리며 스러져가는 것이 보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장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욕망의 좌절로 인한 비애의 정서가 함께 표출된다. 나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욕심에 대한 풍자도 은연 중 드러난다.

紫陽宮女搵丹砂,	자양궁의 여인이 들고 있는 단사는
王母令過漢帝家.	왕모의 명으로 한 무제 궁으로 보내는 것.
春風不肯停仙馭,	봄바람이 천마를 멈추어 서지 못하게 하니
卻向蓬萊看杏花.	이내 봉래를 향해 복숭아꽃을 구경하러가네.

- 張繼, 「上清詞」 중에서<sup>32)</sup>

위 작품에서 장계는 인간의 장수에 대한 욕망의 허망함을 특이한 상상으로 표현한다. 서왕모의 명을 받아 한 무제에게 단약을 전달하러 나온 선녀가 봄바람에 마음을 빼앗겨 심부름은 까맣게 잊고 봉래의 봄꽃을 구경하러 가버린다는 구상은 해학적인 어조를 가진 풍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장생의 선물이 인간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청춘과 춘심을 상징하는 봄바람과 복숭아꽃 때문이다. 인간이 욕망하는 청춘이 오히려 인간의 장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서왕모는 장수의 방법을 장악한 여신으로서 그것을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지만 그녀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인간을 이루지 못할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서왕모가 가진 장수의 주관자로서의 이미지가 당사에서 활용되는 방식은 주로 이와 같은 허황된 욕망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주제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唐詩 속 西王母 이미지에 나타나는 아이러니

서왕모는 미와 장생의 상징으로서 인간에게 잠시 신선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끝내 장생의 비법을 전수하지는 못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목왕과 한 무제는 서왕모를 영접한 즐거움에 도취되었을 뿐 현실의 책무를 완성하여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서왕모의 이상적인 미와 그녀가 장악하고 있는 장생에 대한 동경은 이처럼 현실의 문제 보다는 사사로운 쾌락과 불노장생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왕모의 이미지는 唐代 사회의 지배계급 사이에 유행처럼 번진 사치와 향락의 풍조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들에 등장하게 된다.

#### (1) 仙道の 추구에 대한 풍자

吳融의 「王母廟」<sup>33)</sup>에서 서왕모는 한 무제를 속여 그 마음까지 빼앗아 가버린 부정한 존재로 그려진다.

32) 『全唐詩』, 242권.

33) 『全唐詩』, 685권.

鸞龍一夜降崑丘，  
遺廟千年枕碧流，  
賺得武皇心力盡，  
忍看煙草茂陵秋。

난새와 용이 하루 밤사이 곤륜 언덕으로 내려가더니  
남겨진 묘당의 천년된 목침에는 푸른빛만 흐르네.  
무황제를 속여 마음을 온통 빼앗아 가버렸으니  
무릉의 가을 안개 속 풀을 차마 볼 수 없어라.

난새와 용은 서왕모의 수레를 끄는 신물들로 서왕모가 떠나버린 묘당의 안석에는 세월의 더께만 내려앉았고 武帝의 무덤가에는 풀만 무성하다. 서왕모는 그에게 仙道를 전수하려 했으나 결국 한 무제는 그 교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서왕모의 재림을 기대하며 신선의 祕書를 보존하고 건물과 제사로 신선을 신앙하는 일에만 열을 올릴 뿐 자신의 과오를 고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

嘗稽真仙道，  
清寂祛眾煩。  
秦皇及漢武，  
焉得遊其藩。

……

矧乃恣所慾，  
荒淫伐靈根。  
金膏恃延期，  
玉色復動魂。  
征戰窮外域，  
殺傷被中原。  
天鑒諒難誣，  
神理不可諉。  
安期返蓬萊，  
王母還崑崙。  
異術終莫告，  
悲哉竟何言。

진인과 선인의 도를 음미하고 생각하며  
맑고 고요히 지내며 번민을 쫓아내네.  
진시황제로부터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어찌하여 나라 밖으로만 노닐었는가.

하물며 그 욕망하는 바를 마음껏 하며  
음행을 일삼아 영혼의 뿌리를 베어버렸네.  
금고가 장수를 주리라 기대하며  
옥빛에 또다시 혼이 뒤흔들렸네.  
나라 밖 끝까지 정벌을 벌이느라  
살상의 기운이 중원을 덮치네.  
하늘의 거울은 속이기 어렵고  
신령의 도리는 속이 수가 없네.  
안기생은 봉래로 돌아가고  
왕모는 곤륜으로 돌아갔네.  
기이한 방술은 끝내 전할 수 없었으니  
슬프다 결국 무어라 말해야 할까.

- 吳筠, 「覽古」, 14수 중 6수 중에서<sup>34)</sup>

周穆八荒意，  
漢皇萬乘尊。  
淫樂心不極，  
雄豪安足論。  
西海宴王母，

주 목왕은 팔황에 뜻을 두었고  
한 무제는 만승의 존엄이었네.  
음욕과 쾌락의 욕심 끝이 없거늘  
웅지와 호방함을 어찌 논할까?  
서해에서 왕모와 연회를 즐기고

34) 『全唐詩』, 853권.

北宮邀上元.	북궁으로 상원부인을 초대하네.
瑤水聞遺歌,	요지에는 떠도는 노래만 들리고
玉杯竟空言.	옥배는 결국 허황된 소리 되었네.
靈跡成蔓草,	신령한 흔적은 풀덤불 되었으니
徒悲千載魂.	공연히 천년의 혼만 슬프게 하네. <sup>35)</sup>

- 李白, 「古風」, 59수 중 43수 중에서<sup>36)</sup>

唐 玄宗 시기 道士이자 李白과도 교분이 있었던 吳筠은 신선술만 추구하며 현실정치에는 실패했던 역사 속 제왕들을 비판하였다. 금욕과 덕행을 요결로 하는 선도의 수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욕에만 사로잡혀 있던 두 제왕의 실정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는 唐代的 왕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李白은 「古風」 43首에서 서왕모의 이미지를 빌어 당시의 明皇을 완곡하게 풍자하였다.<sup>37)</sup> 주 목왕과 한 무제가 서왕모를 영접했음에도 仙道에만 도취되어 결국 仙道를 얻지 못한 것을 한탄한 것이다. 서왕모는 이들 제왕들에게 잠시 존재를 드러내어 신선의 세계와 그 도를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더욱 신선에 도취되게 만들었을 뿐 得仙의 경지로 이끌지는 못하였다. 서왕모의 장생의 전수자로서의 이미지는 아이러니 하게도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당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를 모티브로 현실을 비판하고 경계한 것이다. 元結은 기존 장수의 전수자로서의 서왕모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하여 장생을 보존하는 서왕모의 이미지를 들어 허황된 신선술의 추구를 비판한다.

借問多壽翁,	장수한 늙은이에게 물어보았네
何方自修育.	어떤 방술로 스스로 수련하였소?
惟云順所然,	답하기를 자연을 따랐을 뿐이라고
忘情學草木.	풀과 나무를 배워 정욕을 잊었다고.
始知世上術,	세상에서의 방술을 알게 되었나니
勞苦化金玉.	노력과 수고가 금과 옥이 되는 것이네.
不見充所求,	충실하게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空聞肆耽欲.	헛되이 탐욕만 일삼는 것만 들리네.
清和存王母,	맑고 온화함이 서왕모를 보존케 하였으니
潛護無亂蹟.	깊이 흐르는 물은 더러워지지 않네.
誰正好長生,	누가 지금 장생을 좋아하는가?

35) 瞿蛻園 等 校注, 『李白集校注』, 臺北: 里仁書局, 1981, 168쪽.

36) 『全唐詩』, 161권.

37) 이 시에 대하여 蕭士贊은 “이 말은 두 임금(서왕모와 상원부인)을 만났음에도 결국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신 환평의 옥배에 대한 말도 역시 거짓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신선술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시 明皇도 신선의 일들을 좋아했으므로 이 시는 대개 풍간의 의미일 것이다(此言二君雖遇王母, 上元夫人, 然亦卒不免於死, 是亦猶辛垣平玉杯之空言耳. 後之求神仙者可不鑒諸! 當時明皇亦好神仙之事, 此詩蓋有所諷云耳).”라고 하여 이 시가 풍간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고 평론하였다. 瞿蛻園 等 校注, 『李白集校注』, 臺北: 里仁書局, 1981, 168쪽.

此言堪佩服.

이 말 참으로 경탄스럽구나!

- 元結, 「系樂府十二首」, 「壽翁興」 중에서<sup>38)</sup>

이는 요란한 神仙術에 의지하여 장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주의 도가 체현된 자연으로 돌아가 노닐면서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것을 권유한다. 이는 서왕모를 구원의 여신으로 찬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견지한 목소리이다.

## (2) 楊貴妃에 대한 은유와 풍자

唐詩 속에서 서왕모는 楊貴妃를 은유하기도 한다. 서왕모와 양귀비는 ‘여성-존귀한 지위-도교-미녀-제왕의 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상호 은유관계를 형성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당대 황실의 도교의 선양과 신선술에 대한 애호도 작용하였다. 주지하듯이 唐 왕조는 개국의 명분과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老子를 그들의 시조로 삼고 道教를 신봉하였다. 玄宗의 총애를 받던 楊貴妃도 한때 道教에 입문하여 太眞이라는 道號를 받았다. 이 때문에 道教의 아름다운 여신이자 수많은 신선들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서왕모는 양귀비의 비유로 종종 사용되었다. 『全唐詩』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두보는 총 8회에 걸쳐 서왕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아래 작품은 그것이 양귀비의 은유로 해석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東山氣鴻濛,  
宮殿居上頭.  
君來必十月,  
樹羽臨九州.  
陰火煮玉泉,  
噴薄漲巖幽.  
有時浴赤日,  
光抱空中樓.  
閨風入轍迹,  
曠原延冥搜.  
沸天萬乘動,  
觀水百丈湫.

.....

百祥奔盛明,  
古先莫能俦.  
坡陀金虬蟻,  
出見蓋有由.

동산 안개 몽롱한 가운데  
궁전이 산머리에 서있습니다.  
임금님 시월마다 행차하시니  
우뚝 선 깃발이 구주에 드리웁니다.  
땅속 불이 옥 같은 샘을 끓이니  
김과 함께 바위 깊숙이서 용솟음칩니다.  
때로 붉은 태양을 씻길 때면  
빛이 공중의 누각을 감쌉니다.  
랑풍 산머리에 수레바퀴 자국 들고  
광원 별관으로 가 그윽한 곳을 찾습니다.  
하늘 가득 만 승 수레 소리 울리며  
백 장 깊이의 용추에서 물을 바라보십니다.

은갓 상서로움이 성명한 곳에 달리니  
옛 선대도 이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황금빛 두꺼비  
출현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38) 『全唐詩』, 240권.

至尊顧之笑,	지존께서 돌아보며 웃으시고
王母不遣收.	왕모께서는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複歸虛無底,	다시 허무의 바닥으로 돌아가
化作長黃虬.	길고 누런 이무기가 될 것입니다.
飄飄青瑣郎,	빼어난 청쇄문의 侍郎은
文彩珊瑚鈎.	문채가 산호 갈고리 같습니다.
浩歌淥水曲,	호방하게 녹수곡을 부르니
清絕聽者愁.	맑고 빼어난 소리 듣는 이를 시름겹게 합니다.

- 杜甫, 「곽급사의 탕동영추에 화답하여 지음(奉同郭給事湯東靈湫作)」 중에서<sup>39)</sup>

仇兆鰲는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安祿山の 難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작품의 주지를 반란의 기미를 방치하여 결국 장기간 국가를 전란에 빠뜨린 당 현종의 실정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한다.<sup>40)</sup>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문 중의 ‘至尊’과 ‘王母’를 각각 ‘현종’과 ‘양귀비’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한다. 『長安志』의 “開元 후 황제는 매년 10월에 온천에 행차하여 한 해가 다 되면 돌아갔다(開元後, 帝每歲十月幸溫湯, 歲盡而歸).”라는 기록에 의거하면 이 시는 분명 玄宗의 행차를 묘사하는 것이다. ‘閩風’과 ‘曠原’은 곤륜산과 그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인이 이 행차를 목왕의 遠遊에 비유하였음을 말해준다. 목왕이 ‘閩風’과 ‘曠原’에 온 것은 서왕모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王母不遣收’의 ‘王母’는 ‘西王母’로 해석될 수 있다. 龍湫가에서 제사를 올리고 상스러운 기미를 기다리는 와중에 황금두꺼비가 나타난다. 주석가들은 이 황금두꺼비를 안녹산의 비유로 보기도 한다. 황금두꺼비가 나타난 것에는 분명한 이유, 즉 반란의 징조임에도 현종과 양귀비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였음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sup>41)</sup> 王建도 玄宗의 驪山 溫泉宮 행차를 소재로 「溫泉宮行」이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이 시 속에서 한 무제와 서왕모는 각각 현종과 양귀비를 은유한다.

武皇得仙王母去,	한 무제는 득선 하고 서왕모는 떠났는데
山雞畫鳴宮中樹.	산닭은 궁의 나무 위에서 아침마다 운다.
溫泉決決出宮流,	온천은 팔팔팔 궁에서 흘러 나가고
宮使年年修玉樓.	궁 관리는 해마다 옥루를 보수한다.
禁兵去盡無射獵,	금병은 사냥이 없으니 모두 떠나가 버리고

39) 『新唐書』, 本紀第五, 睿宗 玄宗, “二十八年正月癸巳……十月甲子, 幸溫泉宮. 以壽王妃楊氏爲道士, 號太真.”  
『新唐書』, 卷七十六, 列傳第一, 後妃上, “玄宗貴妃楊氏, 隋梁郡通守汪四世孫. 徙籍蒲州, 遂爲永樂人. 幼孤, 養叔父家. 始爲壽王妃. 開元二十四年, 武惠妃薨, 後廷無當帝意者. 或言妃姿質天挺, 宜充掖廷, 遂召內禁中, 異之, 即爲自出妃意者, 丐籍女官, 号“太真”, 更爲壽王聘韋昭訓女, 而太真得幸. 善歌舞, 邃曉音律, 且智算警穎, 迎意輒悟. 帝大悅, 遂專房宴, 宮中号“娘子”, 儀體與皇後等.”

40) “안녹산의 반란은 천보 14년 11월의 일로 이 시는 분명 그 해 10월에 지은 것일 것이다. 이때는 반란 소식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반역의 기미가 이미 짙어 텃으니 작품 가운데 蝦蟆, 長虬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安祿山反, 在天寶十四載十一月, 此詩當是其年十月作. 此時反信未至, 而逆迹已萌, 觀篇中蝦蟆長虬可見).”, 仇兆鰲注, 『두시상주』, 279쪽.

41) 仇兆鰲 注, 『杜詩詳注』, 臺北: 里仁書局, 1980, 279~285쪽 참고.

日西樂鹿登城頭.      해가 기울면 사슴 한 쌍이 성 머리에 오른다.  
梨園弟子偷曲譜,      이원의 제자들은 악보를 훔쳐다가  
頭白人間教歌舞.      백발 머리로 민간에서 가무를 가르친다.

- 王建, 「溫泉宮行」 중에서<sup>42)</sup>

시인은 한 무제의 죽음을 ‘得仙’으로 표현한다. 그가 현실세계의 왕업을 버리고 선도에 빠진 것에 대한 완곡한 풍자의 의미가 담겨있다. 한 층 더 들어가면 이는 玄宗과 楊貴妃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때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唐朝는 안사의 난을 계기로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그 와중에 玄宗은 왕위를 잃고 양귀비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더 이상 현종과 양귀비가 찾지 않는 온천궁의 쇠락한 모습은 기울어져 가는 당시의 사회를 닮아있다. 적막한 궁궐과 뽀뽀이 흩어져 민가를 전전하는 궁인들의 모습에서 전란 이후 몰락한 왕실과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속 西王母는 이따금 楊貴妃의 비유로 사용되어 당대 사회를 반영하고 풍자하는 작품 속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 IV. 맺음말

唐代 이전까지 서왕모는 『산해경』 속 혼돈된 형태의 원시적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해 왔다. 그 진화는 미분화된 이미지들을 씨앗으로 분리와 확장을 통한 이미지들의 축소나 결합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진화는 크게 ‘不死’와 ‘인간 제왕과의 교류’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唐代는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들의 활용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魏晉南北朝의 志怪小說의 발전은 서왕모의 이미지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唐詩에 흡수된 서왕모의 이미지는 대부분이 이 시기에 완성된 周 穆王과 漢 武帝와 관련된 고사를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용과 활용에는 크게 세 가지 경향성이 드러난다. 첫째 제왕의 상대에 어울리도록 설정된 ‘美人’의 이미지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美’의 이미지로 확대되어 비유로 활용되었다. 둘째 ‘장생의 전수자’의 이미지는 당대 성행한 도교와 신선술의 유행과 맞물려 唐詩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신선세계와 신선술에 대한 동경을 주제로 하는 遊仙詩에서 서왕모는 ‘불사’를 본질로 하는 신선의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였으며 서왕모의 복숭아는 그들에게 장생의 선물로 그려졌다. 셋째 그러나 이와 같은 ‘美’와 ‘長生’의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그것의 불가능과 비현실적 이상에 대한 풍자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당시 사회 상류층이 탐닉하던 사치스러운 풍류와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이 서왕모의 이미지를 통하여 형상화되고 풍자되었다.

서왕모는 왜 야수에서 아름다운 장수의 전수자로 진화하였을까? 唐詩 속에서 그들은 왜 여전히 신선세계를 꿈꾸고 서왕모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인가? 道敎는 道家에서 출발했지만 道家가 生死의 이분법적 관념을

42) 『全唐詩』, 298권.

초월하여 정신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는 멀어져 신선술을 통한 불노장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산해경』 속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분화되지 않았던 원시적 존재인 서왕모는 神話가 道教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도교의 신선 계보 속에 편입되면서 도교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신선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周 穆王은 문명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혼돈의 원초적 공간인 崑崙으로 찾아가 서왕모를 만났으며 이러한 행위는 본래 불노장생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초적 모태의 공간으로 돌아가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唐人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미 불사의 여신의 이미지가 공고해진 서왕모와의 만남 그 자체였다. 漢 武帝는 그가 속한 현실의 공간에 신성한 공간을 건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며 마침내 서왕모는 그의 공간에 왕립하였다. 그는 仙道에 심취하여 신선이 되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불사에 대한 사사로운 욕망에 그쳐 서왕모가 전수한 탈속의 계율들을 지키지 못했다. 일리아데는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재현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종교적 인간은 주기적으로 신화적 시간, 성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어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닌’ 기원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된 시간 지속에 참여하지 않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영원한 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up>43)</sup>라고 말한다. 『唐六典』의 따르면 唐代에는 전국에 1687개의 道觀이 있었다고 한다.<sup>44)</sup>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토 안에 신성한 공간을 건설하고 부단히 신성의 세계와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문제보다는 사적인 장생의 추구로 변질되었다. 唐詩 속 서왕모가 부단히 장생의 전달자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은 그 변질과 타락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인들은 서왕모의 이미지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의 仙道에 대한 욕망을 풍자함으로써 순수성에서 멀어진 세태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中華書局編輯部 編, 『全唐詩』, 中國 北京: 中華書局, 1996.  
 『欽定四庫全書』, 子部, 道家類, 『列子』.  
 『欽定四庫全書』, 史部, 正史類, 『史記』.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1.  
 羅夢山 編譯, 『山海經』,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  
 김지선·송정화 譯注, 『穆天子傳·神異經』, 1996.  
 이은상, 「穆天子傳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錢熙祚 校證, 『守山閣叢書』, 『漢武內傳』.  
 김경아, 「『漢武內傳』 試論 및 譯註」,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3) M. 일리아데 著, 이은봉 옮김, 『성과 속』, 경기도: 도서출판 한길사, 2014, 43쪽.

44) 柯銳思, 「唐代道教的多維度審視」, 『中國道教』, 2期 2012.

- 劉安 著, 이석명 譯, 『淮南子』, 서울: 소명출판, 2010.  
 莊周 著,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10.  
 瞿蛻園 等 校注, 『李白集校注』,臺北: 里仁書局, 1981.  
 仇兆鰲 注, 『杜詩詳注』,臺北: 里仁書局, 1980.  
 王秀梅, 王泓冰 編, 『太平廣記』, 北京: 中華書局, 1996.  
 王枝忠, 『漢魏六朝小說史』,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1997  
 葛兆光 著, 심규호 譯, 『도교와 중국문화』, 서울: 동문선, 1993.  
 송정화, 『중국여신연구』, 서울: 민음사, 2007.  
 유강하, 「漢代 西王母 畫像石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柯銳思, 「唐代道教의 多維度審視」, 『中國道教』, 2期, 2012.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2005.  
 마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김준오, 『시론』, 서울: 삼지월, 2007.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8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 Study on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Xi Wang Mu in Poetry of the Tang Dynasty

Park, Hyekyung\*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the origin of the image of Xi Wang Mu in Chinese literature and the development aspect, and determining the correlation how this was utilized in the poetry of the Tang Dynasty as the image that embodied which concept and lyricism. For this, chapter I classifi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s 'the initial confusion type' - 'immortality' - 'contact with emperor' by analyzing the aspects of Xi Wang Mu in the literature before Tang Dynasty. Chapter II analyzed the metaphorical function of Xi Wang Mu and irony expressed through this by dividing the image of Xi Wang Mu among the poetry included in 『Quantangshi』 into 'beauty(美)' - 'longevity(長生)' - 'irony'.

**[Key Words]** the poetry of the Tang Dynasty, Xi Wang Mu, the initial confusion type, immortality, contact with emperor, beauty, irony.

---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